

사이버윤리교육이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오경숙*, 윤상용**, 김영숙*, 이성숙**

*국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국제대학교 교양교육학부

A study on the effect of cyber ethics education on parents' Internet ethics awareness

Kyoung-Sook Oh*, Sang-Yong Yun**, Young-Suk Kim*, Sung-Suk-L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Dept. of Liberal Arts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의식 교육에 10회기 동안 참여한 학부모들의 SNS활동 변화 및 인터넷 윤리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회 동안 경기도 P시에 위치한 K대학교에서 사이버윤리교육 강사과정에 참여한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CBT(computer-based testing)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24.0)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대응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부모들은 사이버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SNS 활동과 선한 댓글달기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교육 실시는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였다.

Key Words : 사이버윤리교육, 학부모, 인터넷윤리, 정보통신윤리의식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녹아들었다. 이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CT)의 새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도전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준수,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윤리 교육은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1]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사이버윤리 교육은 윤리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2], 학부모의 인터넷 지식이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3] 학부모들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윤리 교육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사이

버 행동과 디지털 시민권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4]. 이러한 사이버윤리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컴퓨터 관련 수업부터 전문적인 워크숍 혹은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연령대가 인터넷 사용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 윤리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각각의 사용자가 올바른 디지털 시민권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5].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개인의 정보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는 올바른 사이버 시민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6]. 정보통신 윤리 의식은 디지털 세계에서 개개인과 사회 전체가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규범 준수

가 중요해지고 있다[7].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사이버윤리 교육 경험과 그들의 인터넷 윤리 의식 간의 관계를 통해 사이버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윤리 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이버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학부모의 SNS 활동 참여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인터넷 윤리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K대학교에서 사이버 윤리 강사 양성과정에 80%이상 참여한 학부모 총 42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이버윤리 참여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N=42)

	변 인	n(%)	변 인	n(%)
연 령	20대	4(9.5)	없음	27(64.3)
	30대	16(38.1)	본인 소득 유무	있음 15(35.7)
	40대이상	22(52.3)	전체	42(100.0)
	전체	42(100.0)		
학 력	전문대졸이하	24(57.2)	낮음	25(59.5)
	대학교졸이상	18(42.8)	생활 수준	좋음 17(40.5)
	전체	42(100.0)	9시간	42(100.0)

2.2. 연구 도구

2.2.1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CBT(computer-based testing) 기반의 대학생 자가진단 (<http://www.nethics.kr/intro.jsp>)[8]:[9]의 내용을 설문지로

옮겨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24문항이며 4개의 하위요인(자율, 존중, 책임,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37으로 분석되었다.

2.3. 자료수집과 자료처리

본 연구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회기 동안 경기도 P시의 K대학에서 실시한 학부모대상 사이버윤리 교육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한 42명의 학부모이다. 처음 모집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60명이었고, 이중 80%이상 출석에 참여한 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의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한 첫날 인터넷 윤리의식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연구의 목적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려준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즉시 회수하였다. 이후 교육이 끝난 후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 빈도분석, 대응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학부모의 SNS

활동참여 변화

<표 2>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학부모의 SNS 활동 참여 변화

변 인	교육 전(n=42)		교육 후(n=42)		t
	M	SD	M	SD	
평일 SNS활동	2.90	1.21	3.38	1.34	-3.272**
휴일 SNS 활동	3.48	1.25	4.14	1.29	-4.411***

** $p < .01$, *** $p < .001$

<표 2>과 같이 사이버윤리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사이버윤리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평일 SNS활동($t = -3.272, p < .01$)과 휴일 SNS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t = -4.411, p < .001$). 즉, 학부모들은 사이버윤리 교육을 이수한 후 SNS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선플과 악플 댓글 인식 변화

변 인	교육 전(n=42)		교육 후(n=42)		t
	M	SD	M	SD	
선한댓글인식	2.31	.98	3.02	.92	-2.555*
악한댓글인식	1.24	1.07	1.29	1.11	-1.111

*p<.05

<표 3>과 같이 사이버윤리교육을 받은 학부모(M=2.31)들은 사이버윤리 교육을 받기 전(M=3.02)에 비해 선한댓글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2.555, p<.05). 반면, 악한 댓글에 대한 인식은 받기전과 받은 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부모들은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이후 선한댓글을 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 변화

<표 4> 사이버윤리 교육 참여 전·후 인터넷 윤리의식 변화

변 인	교육 전(n=42)		교육 후(n=42)		t
	M	SD	M	SD	
자율	3.38	.88	3.45	1.01	-.552
존중	2.98	1.07	3.14	1.00	-2.471*
책임	2.07	.89	2.33	.97	-2.707**
참여	3.36	.87	3.62	.41	-2.553*
전체	2.95	.38	3.14	.40	-4.165***

*p<.05, **p<.01, ***p<.001

<표 4>와 같이 사이버윤리교육을 받은 학부모(M=3.141)들은 사이버윤리 교육을 받기 전(M=2.95)에 비해 인터넷윤리의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4.165, p<.001). 하위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존중(t=-2.471, p<.05), 책임(t=-2.707, p<.01), 참여(t=-2.553, p<.05)에서 사이버윤리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사이버윤리교육 참여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자율에서는 학부모들이 사이버윤리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즉,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교육 실시는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윤리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10회기 동안 사이버 윤리교육을 들은 학부모들의 인터넷윤리 의식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윤리교육 참여 전·후 학부모의 SNS 활동 참여 변화에서는 사이버 윤리교육에 참여 후 SNS 활동을 교육전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SNS 활동 시 악한댓글인식 변화는 없었으나, 선한 댓글에 인식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즉, 학부모들은 교육 후 SNS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SNS활동을 전개하면서 선한 댓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버 윤리교육 참여 전·후 학부모의 인터넷 윤리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학부모들은 사이버윤리교육 참여를 통해 SNS 활동 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 참여하고 있는 인식 변화의 결과로 이는 학부모 대상의 사이버 윤리교육은 학부모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의 대상 선정이 모든 인간의 성장 교육의 기초를 담당하는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됨으로 자녀에게까지 교육 영향이 확장되어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이버 윤리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집단과 그룹으로 확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통계적 활용에는 인원과 대상에 제한점이 있다. 사이버상의 관계가 점진적 확대 되어지는 사회 변화에 사이버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더 많은 대상과 집단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Boyd, D., & Ellison, 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pp. 210-230.

2017.

- [2] 임주희, 최선실, 강오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6(1), pp. 181-185, 2012년.
- [3] 성은모, 황경아, 이재연.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R14-2, 2012년.
- [4] 김승현, 이창배, 김세신, 김태현, 정임수, 조성진. “사이버 윤리의식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모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1), pp.17-34. 2022년.
- [5] 김아영, 차우규. “인성교육으로서 정보윤리교육의 핵심 주제 및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탐색”. 교원교육, 37(3), pp. 115-130. 2021년.
- [6] 최효식, 추병완, 최윤정.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잠재집단 탐색 및 영향 요인 검증 - 삶의 만족도, 희망, 그릿, 민주시민성 차이를 중심으로- ”. 도덕윤리과 교육,(80), pp. 169-192, 2021년.
- [7] 배영임, 김유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2022년.
- [8]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 <http://www.nethics.kr/intro.jsp>
- [9]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 2011년.